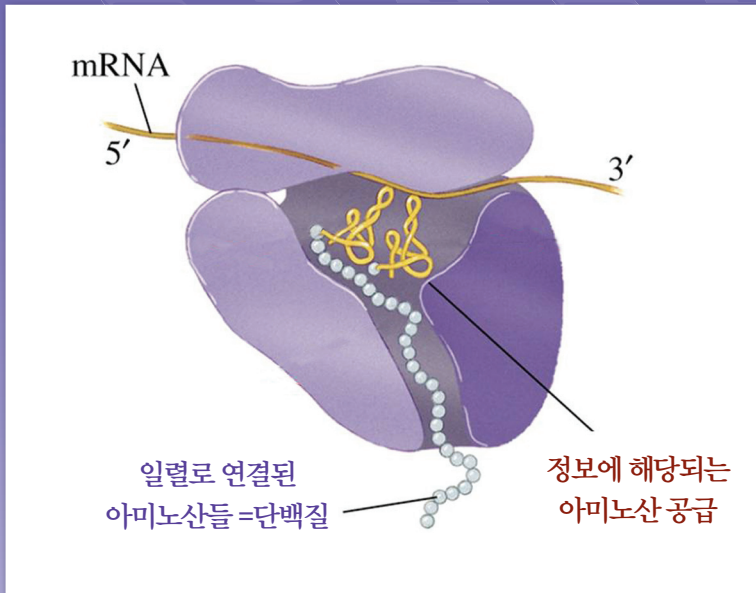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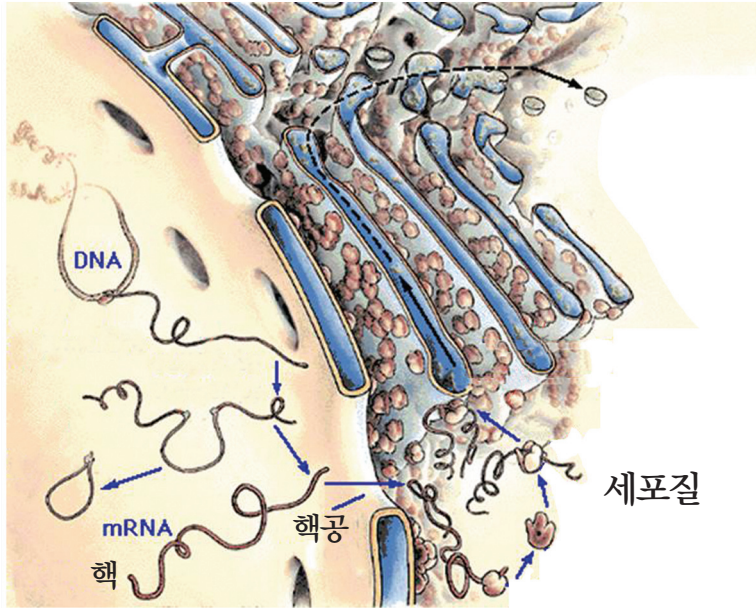


세포 속에서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 (6)

DNA 정보가 실물로

조그마한 가구나 아이들 장난감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사면 꼭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한 가지 있다. 설명서를 보고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종종 부품 이름들이나 지침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따라 하기가 쉽지 않다. 대충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 정보가 실물로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포 속에서도 그와 아주 유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간 세포에 인슐린이 불게 되면 그 신호가 세포 중앙의 핵 속에 전달되고 혈액 중의 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 들이고 단백질을 만드는 등의 인슐린 작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DNA)들이 복사 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DNA 정보는 일단 없어진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필요하면, 이중 나선 구조의 안정한 DNA는 순간적으로 열려 단선 구조의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비로소 정보 복사를 허용하고 다시 곧바로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 간다.

이 과정은 약 1m 길이의 DNA에서 마치 바늘 끝 한 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복사하는 것인데, 마치 대형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지체 없이 한 권을 고르고 그 책에서 꼭 필요한 페이지를 즉각 열어 필요한 한 문장만 베껴내는 것과 같다. 아직까지 세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복사 된 정보를 과학자들은 mRNA라고 부르는데 m은 messenger란 뜻이다. R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와 거의 똑같은 화학구조를 가졌지만 한 가닥으로만 된 DNA의 복사본이다. 이 복사 된 mRNA 정보는, 마치 아빠(messenger)가 도서관에 가서 딸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수첩에 적어 도서관 문을 통해 나오듯이, 그 핵을 싸고 있는 막에 있는 출입문(핵공)을 통해 밖으로 보내진다(그림). 이 곳이 세포질이다. 여기에는 그 정보를 읽고 실물인 단백질을 조립해내는 생체 기계인 리보솜(Ribosome)이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마치 구형 컴퓨터에서 펀치 된 카드가 카드 리더(Reader)를 지나면 그 속에 있는 정보가 글자로 인쇄되어 나오듯이, 암호로 되어 있는 RNA 가닥이 이 리보솜을 지날 때 들어 DNA에 들어 있던 정보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최종 산물인 단백질로 나타나게 된다. 단백질이란 것은 20 가지의 단위 성분(아미노산) 수 백 개가 한 줄로 연결된 커다란 덩어리로 한 가지 단백질은 한 가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사람은 2만~2만5천 가지의

길고 짧은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펀치 된 카드의 구멍과 컴퓨터에서 인쇄되어 나온 글자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구멍과 글자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 카드의 정해진 구역 밖에 구멍을 뚫으면 아무 글자도 인쇄되지 않는다. 사람이 구멍 위치와 글자의 상관 관계를 미리 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똑 같은 경우가 RNA 정보가 단백질로 나타나는 경우다. RNA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과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RNA가 직접 아미노산과 접촉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RNA라는 화학물질과 20 종류의 아미노산의 연관성은 어떻게 생겨 난 것일까? 세포의 창조자가 정하여 놓았다는 설명이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일 것이다.

도서관과 아주 유사한 생명체의 DNA 정보 체계,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운용 되듯이 짜여 있는 리보솜 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학자들의 발견들은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형상인 과학자들을 통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었다. 성경의 주장대로(롬 1:20),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창조자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한 없는 사랑에 경배를 드립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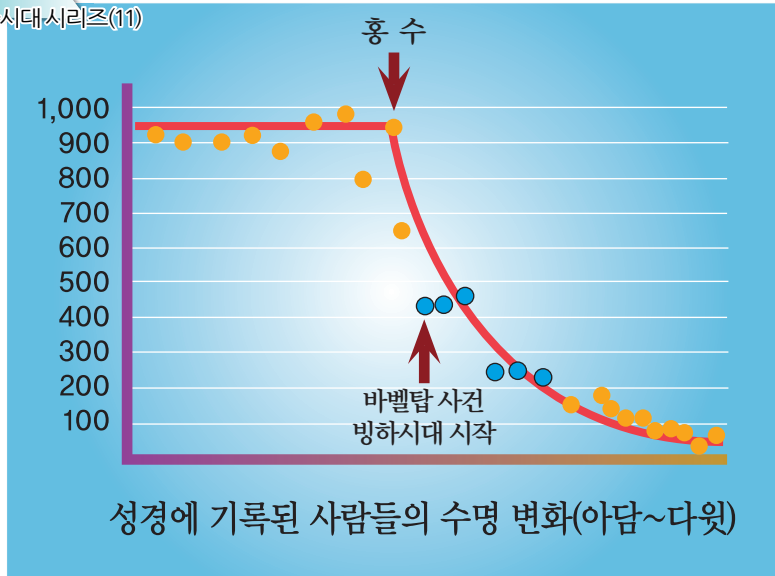
성경이
진짜 역사관 것들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역사가 될 것이다.

AFTER EDEN

by Dan Lietha

265





바벨탑- 빙하시대가 일어난 이유(2)

앞 단원에서 빙하시대의 원인으로 바벨탑 사건을 다루었다. 육지에 눈들이 쌓여 빙하를 이루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낮아져서 대륙붕이 드러나 각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가 형성된 것이다. 언어의 혼잡과 드러난 다리로 인류가 각 대륙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후 해빙 때에 오늘날의 빙하만을 남겨놓고 눈이 녹으며 다시 해수면이 상승하여 서로 건너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언어로 흩어지고 빙하의 누적으로 해수면을 낮추시는 과정으로 빙하시대를 이용하신 것이다.

빙하시대는 인류를 흩어버리는 과정과 함께 지구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노아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시작되었지만(창 8:22),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날씨는 지금의 추위와 더위보다 훨씬 온화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는 홍수 직후 따뜻한 해수온도로 인한 습윤사막을 다룰 때 이미 언급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본격적인 추위와 더위는 홍수 이후부터라기 보다는 빙하시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표현이 맞다. 오늘날 육지의 1/3은 사막이며, 1/3은 동토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나머지 1/3이라고 항상 날씨가 좋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 그러나 전 인류에 대한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던 환경이었다.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은 아담의 범죄 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며 흠집이 가기 시작했으며, 죄악이 가득했기에 일어난 홍수 심판 이후에는 추위와 더위가 생기는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변했다. 그 후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사막과 동토가 형성되어 훨씬 악화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악화된 상황은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홍수 이전에 900세 이상을 그대로 유지했던 수명이 홍수 이후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500세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그대로 유지되던 나이가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시기인 벨렉을 기점으로 또 반인 200세 중반으로 갑자기 줄어들다가 점점 감소한다. 분명히 이 시기에 인간수명을 단축시키는 지구 환경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추위와 더위가 노화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성경기록을 비교하더라도 바벨탑 시기와 빙하시대의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다.

방주에서 나온 육지동물의 멸종도 빙하시대부터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 직후에는 지금과 달리 훨씬 온화했을 극지방 근처로 이주했던 많은 육지동물들은 빙하시대 동안과 특별히 해빙 때 산사태와 눈사태에 의해 매몰되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매머드이며, 빙하시대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그 밖의 육지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보다도 공룡과 같은 거대한 냉혈동물들은 빙하시대를 넘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며 이 시기를 넘겼다 할지라도 더 악화된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종시킬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방주에 태우셨던 이유는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창 7:3)라고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동물들의 멸종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 (공룡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인 욥기와 빙하시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추위와 더위가 더 심해져 각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므로 한 종류 안에서도 자연선택에 의해 분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이 분화는 종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인 손실과정으로 다양해지는 ‘변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내용도 차후 자세히 다룰 것이다)

바벨탑은 홍수 이후 “충만하라”(창 9:1)는 명령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다. 우리가 지금 육대주에 퍼져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명령을 거역했으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행하신 것이다. 자선께서 하신 명령을 언어의 혼잡을 통해 직접 이루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은 추위와 더위가 더 극심하게 악화된 환경으로 변한 것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CT News

탐사여행 / 한국 사역 /
창조과학학교 / 인턴십



창조과학 탐사여행

광주동광교회

지난 10월 1-5일 광주동광교회(담임 김민식 목사)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6월 장신대 총장과 이사장에 이어 이루어진 탐사여행입니다. 광주동광교회는 탐사여행에 이어 지난 11월 5, 6일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지부와 함께 이재만 지부장을 초청하여 창조과학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충현선교교회 선교사

지난 10월 11-13일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참석하신 선교사님들께서는 선교 대회뿐 아니라 탐사여행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으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각 선교지에서도 창조과학이 귀한 도구임을 인식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귀한 탐사여행 소감을 간증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모세회 노아홍수와 진화론 두 차례의 세미나에 이어 지난 10월 9일에는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청한 노아홍수 DVD 시청과 강연, 그리고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 관람, 아름다운 토리파인 비치에서 노아홍수 지층을 직접 보면서 역사를 통해 드러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만 부회장 한국 사역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10월 15일- 11월 8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주대학교와 한동대학교를 포함해 새밭교회, 천안 서광





ANC 모세회 샌디에고 탐사여행



100차 창조과학 탐사여행 중에서



시카고 11기 창조과학학교 졸업생들

교회, 양재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이랑학교, 춘천 예닮교회, 부천 복된교회, 미래컴퍼니, 남송교회, 광주 동광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중부지역 창조과학학교

지난 9월 10일 시카고 미드웨스트 교회(담임 정영건 목사)에서 개강된 제11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11월 12일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25명이 등록하여 3분의 목사님을 포함하여 매주 3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17명이 수료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10기 창조과학학교를 열었던 시카고 구세군교회(담임 장호균 사관)와 미드웨스트교회는 창조과학 사역을 후원하기로 약정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인턴쉽 소감

나에게 2010년 여름은 무척이나 뜻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창조과학 선교회에서 인턴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으며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왔다. 추천해 주신 좋은 책들과

제 11차 유학생 탐사여행 모집

한국 온누리교회(하용조 목사)와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는 유학생 탐사여행에 초대합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 그리고 대학생과 배우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11년 1월 3일-5일(월-수)
- 경유지: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 인 도: 이재만 선교사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더 자세한 내용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의 “11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이콘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차 유학생 탐사여행 후기는 14 페이지 간증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같이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온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다시금 확신했다.

인턴을 하면서 가장 마음 깊이 새긴 것은 성경은 진리이며 무오하다는 것이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구절을 믿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다. 창세기를 신화나 비유로 해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깨닫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뵈을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초석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들을 위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말로는 다 형언할 수가 없다.

또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은 어디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와 닿을 때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나는 남보다 “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은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인턴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그 무엇 보다 귀하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동물중의 하나가 아니라 동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마지막으로 그랜드캐니언으로 떠났던 탐사여행은 나에게 수십만년 동안 지층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자연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그랜드캐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심판사건 노아홍수의 기념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우리의 맘대로 살고자 하시는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수 기념비를 만들어 두신 것이다. 한눈에 보기에 불가능하고, 절대 못봤다고, 모른다고 발뺌할 수 없는 크고 웅장한 기념비, 바로 그랜드캐니언이다. 자연의 신비함으로만 생각했던 그랜드캐니언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심판의 기념비로 바뀌었을 때 그 앞에서 나는 무서우신 하나님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뵈게 되었다.

나는 이 인턴기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고 성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었다. 진화론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과학에 대해 더욱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양윤희/ 생물교육학(군산대학교 4 학년)

인턴십 훈련 시작

창조과학선교회의 인턴십(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Science: ITCs)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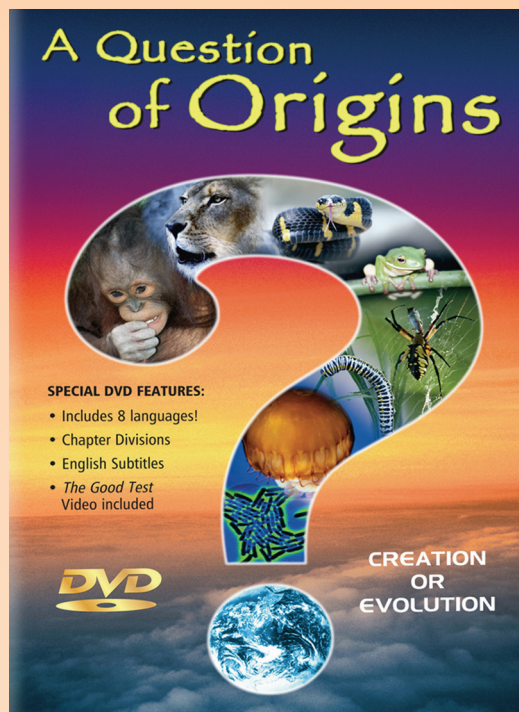
이 과정은 창조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ITCs 과정은 성경-과학-사역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 공부(로마서), 창조과학 자료 학습, 창조과학 탐사여행/창조과학세미나 등 사역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 시: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2월 25일 (10 주간)

● 강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창조과학선교회(hisark@gmail.com)로 연락 바랍니다. 또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재들이 잘 육성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새의 하나님



기원에 대한 질문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지식은 하나님 없이도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 예를 들면 세상의 시작에 관한 지식이나 생명의 기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몇몇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무신론적 확신은 실제 과학적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과학은 우리 삶에 가장 근본적인 지식인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 대신 과학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보이는 것”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이 실험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점점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보이는 것들이 어디서 말미암았는지 스

스로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과학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논의와 관련해서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번개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려 할 때 신을 동원했다. 근대 이전에는 하늘의 별들을 천사들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천체물리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천체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운행한다고 생각한다. 무신론은 이렇게 과학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신은 필요 없다고 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틈새”는 점점 과학적 발견에 의해 메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 신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신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다. 첫째, 그 틈새를 메운 주인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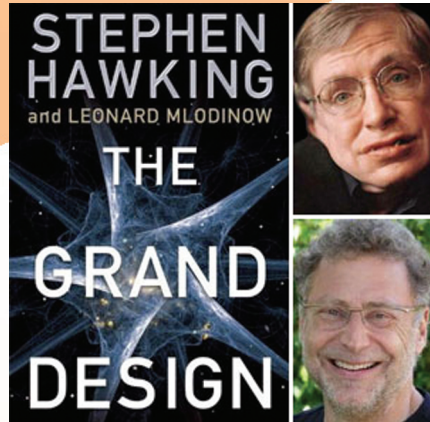
한 명인 뉴턴은 여전히 이 우주가 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뉴턴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틈새를 메우는 작업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작업이었다. 둘째, 설령 틈새를 다 메운다 해도 결국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그 원리를 발견한 것일 뿐, 그 만드신 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모두 이해하게 되어 그 설계자가 필요 없어도, 여전히 자동차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은 물질세계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역사와 인간의 주관자로서도 일하신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틈새의 하나님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그 모든 틈새들이 결국 다 메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과학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틈새들을 메우는 것은 실제적인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한 추론과 믿음일 것이다.

물론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노아 홍수가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노아 방주에는 어떻게 천지 사방의 모든 코로 숨쉬는 짐승들이 탔을까? 성경이 특별히 말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럴듯한 답은 내놓을 수 있어도 확실한 답을 알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틈새의 하나님으로 격하시키는가? 또, 짐승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생물학적 메카니즘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가? 두 질문 모두 대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다(창1:28). 땅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은 땅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의 과학활동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다. 물질세계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묘마축하심을 이해하고 찬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도 “틈새”를 메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과학활동으로 모든 틈새가 메워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활동이 모든 틈새를 메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활동의 성질과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며,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나아가 설령 모든 틈새가 메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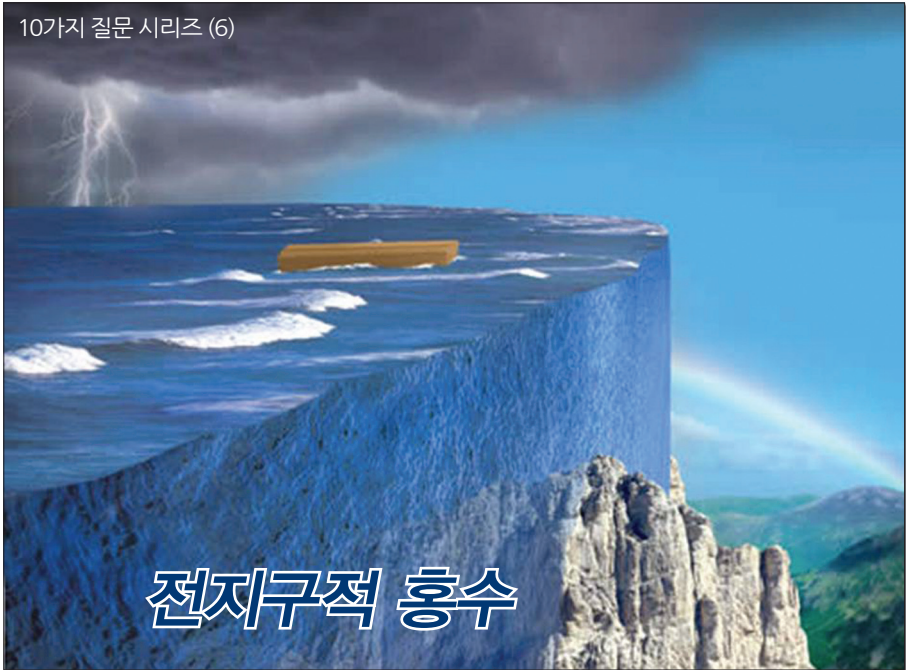
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2). 과학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알게 될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주의 존재를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 호킹과 밀로디노프의 최근 저서



최태현 강사
행정학



국지적 홍수? No. 노아의 홍수는 천하의 높은 산을 15 규빗 이상 덮었다 (창세기 7:19-20).
그렇다면 이는 국지적 홍수일 수가 없다.

“노아가 경험한 홍수는 오늘날의 홍수처럼 소규모의 지층만을 만드는 국지적 홍수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물이 온 지구를 덮었고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을 죽였다고, 우리가 지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 천 미터 깊이의 지층들과 그 안의 화석들은 이 특별한 조건으로만 설명 가능하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전지구적 홍수의 역사적 실상에 대해 명확히 말한다. 창세기 7장 19-22절은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을 15 규빗 (26 피트, 8 미터) 이상 덮었다고 말하고, 방주 밖에 있던 코로 숨쉬는 모든 육상동물들과 인간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암석과 화석들이 (전지구적 홍수가 아니라) 수백만년 동안 형성되었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성경의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80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젊은 지구와 전지구적 홍수를 믿었다. 찰스 라이엘의 영향을 받기 전인 1830년대 이전에는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이라는 생각은 미약했다.

라이엘은 오늘날 지층이 천천히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성경을 거부하고 지구의 암석층들은 수백만년동안 천천히 쌓여 왔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역자주: 이는 “동일과정설”이라 불리는 사고로, “현재는 과거의 열쇠이

다.” 즉 현재의 지질변화의 속도로 과거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실제 암석들의 형성과정을 결코 본 일이 없다. 오늘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인 전지구적 홍수에 의해 암석들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라이엘의 주장은 관찰이 아니라 그 자신만의 신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서구 대학들을 사로잡았고 서구 사회 전체에 퍼졌다.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이 생각을 성경과 조화시키려 시도했다. 기독교인들이 취했어야 하는 행동은 성경의 권위 위에 서서 전지구적 홍수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사실 전지구적 홍수는 전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화석층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전지구적 홍수를 보여주는 엄청난 물리적 증거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궁극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1), 전지하시고 (골로새서 2:3), 영존



전지구적 대규모 홍수로만 설명될 수 있는 지층과 화석

하시고 (요한계시록 22:13), 거짓말하실 수 없는 (디도서 1:2)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다른 길은 과거에 대해 짐작만 할 수 있는 (로마서 3:4을 보라)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이다.

몇몇 기독교인들(타협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석을 포함한 대규모 암석층을 설명하기 위해 전지구적 홍수 이전 수백만년의 지층형성 기간을 가정했다. 이 생각의 문제는 홍수의 물이 과거의 오래된 지층을 휩쓸고 새로운 지층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타협은 지층을 설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기록을 더럽히는 것이다.

전지구적 홍수는 이해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몇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Bodie Hodge는 서던 일리노이(카본데일)에서 기계공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AIG의 강사이자 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10차 유학생 탐사여행

(8/2 - 8/4, 2010)

... 유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에 아깝지 않은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했고, 향후에도 함께 하는 유학생들이 탐사여행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심상현 목사, 서울 온누리교회, W. LA 온누리교회)

탐사여행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전문적인 지식을 아주 쉽게 풀이하는 것이 좋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 박재연, 주님의 빛 교회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더욱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에서 노아홍수의 증거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 김운진, 새소망 침례교회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조정은, 새소망 침례교회

교회에 다닌지 오래 되지 않아서 확신이 부족하였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존재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으며, 조금 더 넓은 학문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 박수정, 사능교회/LA 새문안교회

이 일들이 사실일까 하는 ...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진리를 얻어 제 얕은 믿음을 힘을 얻었습니다. ...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 윤정희,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 즐거웠습니다. ... 다음 세대에 징검다리 되게 해주세요. - 정진주,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제가 가진 지식적 교만과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 제 눈 앞에서는 그랜드캐년과 주님께서 주신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 강연옥, 새생명 선교교회

생생한 설명과 답사로 사실로서의 성경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윤지혜, 삼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엄청난 부분이 진화론의 산물이었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 조승원, 정은영, 삼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심지어는 무서울 정도로 들어맞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으며 성경의 권위를 뼈저리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백승주, 대전 사랑의 교회

소중한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 뻔 했습니다. ... 또 한번 참가하기를 원합니다. - 김태훈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시간, 물질을 만드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 학문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념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성경을 창조론적인 사고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 김은하, 미시간 새소망침례교회

유학생활동안 주님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제가 배운 학문과 주님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탐사여행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또 제가 배운 학문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 황주희, 미시간 새소망침례교회

확실히 알게 되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 김정원, W. LA 온누리교회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가영, 배다신 장로교회

나와는 웬지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위대하신 분이며, 성경이 사실임이 믿어집니다. - 장우정, 엘바인 온누리교회

“아! 역시 나의 하나님이서”라는 생각을 했고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 허수미, 엘바인 온누리교회

중고등학교때 배웠던 지구과학 내용들이 모두
깨지는 순간들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
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정선경, LA 온
누리교회

충현선교교회 탐사여행 간 증문 (10/11 - 10/13, 2010)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
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과
학을 위한 얼마나 분명한 기준이 되는지를 다시 바
라보게 되었다. 창조과학에서 시작하여 학문의 전
영역에서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 진화론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민종기 목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던 부분들이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정국 집사

저는 중학교 때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실직하고
주님을 떠나 26살 이후에 돌아왔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온 후 예수 그
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성경말씀의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 최
바울 선교사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
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이가 학교
에서 진화론을 듣고 순간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었
을 때 CGN TV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번밖에 듣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탐사
여행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듣고 진화론의 잘못된
점을 알았습니다. - 김정룡, 성경초 선교사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창세기 1장부
터 11장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 박민권 선교사

기원에 관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
해 너무나 피상적으로 믿어 왔고 믿고 싶은 대로
골라 믿었던 부분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큰아이가 간혹 공룡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냥 믿어!”라고 확신이 없는 대답으로 넘어가
곤 했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성경을 펴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
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
니다. - 김종경 목사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과 진
화론이 허구임을 진화론을 믿는 자들에게 더욱 확
실히 설명해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소원하기는
창조과학 선교회가 널리 알려져 모든 크리스천이
힘을 합쳐 세계 각 나라의 진화론적 교과서를 창조
론적 교과서로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정
재현 집사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저희 선교 사역에 큰 도움
이 됩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창조론도
공부했지만, 막상 창조론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정확
한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자녀와 같이
참가하고 싶습니다. - 천강민 선교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
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이 끝이 없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
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주
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 이정희 선교사

창조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을 보았습니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 놓으시고 보여 주셨
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고 진실하십니
다. - 이광용 장로

창세기의 말씀을 더욱 확증하게 하는,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는 귀
한 탐사여행이었습니다. - 손 철 장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다
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성
우 장로

산과 지층 자연들, 그리고 성경말씀이 사실이라
는 확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재훈

늘 하고 싶었던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여하여
몰랐던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서 감사
합니다. - 이대경 권사

● 지면상 실리지 않거나 편집되지 않은 간증 전문은 홈
페이지 “간증”을 클릭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ACT Schedule

- 12/3-5 그레이스 헬로쉽교회 (이재만), Houston, TX
- 12/12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12/13-23 월드미션대학교 겨울 특강(이재만, 최우성, 최태현), LA, CA
- 12/18 House of Siloam (이재만), Lake Elcino, CA
- 12/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은혜의 방주교회 EM, 213-381-1390)
- 12/26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샌디에고에서 출발, 858-874-2412)
-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열바인 온누리교회 EM 탐사여행, 213-381-1390)

2011년

- 1/3-5 창조과학 탐사여행 (11차 유학생, 213-381-1390)
- 2/9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16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의사팀, 213-381-1390)
- 2/23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Westminster, CA
- 2/26 새생명비전교회 (이재만, 213-381-1390), Los Angeles, CA
- 2/28-3/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생터 성경사역원)
- 3/4-5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512-454-1727), TX
- 3/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951-245-9500)
- 3/13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3/21-31 아키타, 아오모리, 센다이, 나가노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4/16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이재만, 김선욱, 김낙경), San Jose, CA
- 4/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LV 순복음교회 EM, 213-381-1390)
- 4/2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 4/29-5/1 그랜뷰 침례교회 (이재만)
- 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전주 비전대학교)
- 5/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446-2821)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